

교환학생 보고서

-STU S/S 학기 -



소속

금오공과대학교

학번

201**447

이름

홍지창

교환학생 보고서

파견대학/기간	Slovakia Technical University / 2016.02.11. ~2016.06.30.
항공권	항공권은 스카이 스캐너를 통해 합격 직후 예매 했고, 경우에 따라 오픈 티켓으로 예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국대학 홈페이지에서 학사 일정을 확인 후 여유롭게 귀국일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일행 중 터키를 경유한 항공권을 구입 한 학생도 있었는데 일본을 경유했던 본인보다 10 만원가량 저렴했다.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시거주증 취득 방법	임시거주증은 슬로바키아 외국인 경찰서에서 취득해야 하는데 브라티슬라바에 위치하고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범죄경력증명서, 보험증서, 기숙사 입사 확인서, 입학 허가서가 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문과 컬러로 인쇄된 것만이 가능하고 출국 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험증서 역시 한국에서 가입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 판단되어 여행자 보험(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단기간 외국 체류이니 여행자 보험으로 분류되었다.)을 가입하였고 보험사 측에 영문으로 된 증명서를 요구했다. 기숙사 입사 확인서와 입학 허가서는 STU 측에서 발급해주는 것인데 영문 버전과 슬로바키아어 버전 모두를 요구하여 받는 것이 수월하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영문 증명서들은 슬로바키아에 도착하여 번역사무소에서 슬로바키아어로 번역을 받고 공증을 받아야 경찰서에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 점 숙지하고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학교 수업	한국의 다른 대학과는 달리 STU 는 일정을 보고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후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강의 계획서에 수업 언어가 있는데 영어로 된 강의를 신청해야 하며 슬로바키아어로 진행한다고 명시된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 코디네이터에게 말해 수정해야 한다. 시험은 학기에 중간 고사 1 번과 기말 고사를 여러 번 칠 수 있었다. 기말 고사의 경우 본인이 만족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교수가 말해주는 일정에 맞추어 재시험 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학점 부분은 우리 대학과는 다른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 8etc 라고 해서 8 학점이 아니라 4etc 이상은 모두 3 학점이고, 1etc 는 1 학점, 2~3etc 는 2 학점이다. 이 점 염두에 두고 수강신청을 해야 귀국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주변 환경	학교 주변에는 구시가지라고 불리는 Old town 이 있고, 브라티슬라바의 시내다. 따라서 많은 레스토랑과 카페, 은행, 주점, 관광지,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고 강을 건너면 쇼핑타운도 갈 수 있다. 기숙사 앞에는 유럽의 대형 마트가 있다. 학교 내에는 구내 식당 개념의 레스토랑과 분식당 개념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서점도 존재한다.

	시가지 내에는 다양한 분위기의 펍과 클럽이 있는데 클럽의 경우 입장료가 없는 클럽도 있으니 알아 보고 가는 것이 좋다.
거주형태/식사	브라티슬라바에 위치한 Faculty 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트램으로 15 분 정도 떨어진 Mlada garda 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 기숙사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동 현관과 화장실이 있고 또 다른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 인 1 실이고 하나는 1 인 1 실이다. 침대와 라디에이터, 배게, 책상, 옷장이 있으며 이불과 스탠드는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식사는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학 기숙사 식당처럼 선불이 아닌 그때 그때 결제하고 먹는 방식이다. 학생증을 발급해주면 학생증에 돈을 넣어 놓고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인데 학생증에 돈을 충전하는 것은 기숙사 식당에서 가능하다. 메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날 마다 다르게 시간마다 다르니 현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다. 보통 감자튀김과 수프, 케익, 닭가슴살, 피자 등을 자주 먹는다. 그 외에 기숙사 앞에 대형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빵과 식료품 등을 구입하여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리적 위치/날씨/교통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 내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티슬라바는 서유럽 국가들로 접근성이 좋으며 특히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과 버스로 50 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매 시간 마다 버스가 있고 통행하는 차량도 많으니 히치하이킹으로도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다. 날씨는 유럽 특성 상 겨울에도 비교적 해가 길고, 현지인들은 굵은 빗방울에도 우산을 쓰지 않을 정도로 비가 잦으며 겨울에도 비를 자주 만날 수 있다. 우산을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맑은 날에도 오후엔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이상할 것 같은 날씨에서도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교통편의 경우 트램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목적지에 따라 이용해야 할 교통 수단이 다르다. 티켓은 정류장마다 구입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동전으로만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은 1 시간에 3 Zone 기준으로 0.6 유로로 구입할 수 있는데 3 Zone 이면 브라티슬라바 내에서는 웬만한 곳이든 닿을 수 있고 검표원이 가끔 버스에 올라타 검사하는데 이 때 표가 없으면 혹은 마킹 되어있지 않으면 70 유로의 벌금을 내야하니 항상 표를 살 수 있도록 하고 동전이 여유 있을 땐 여러 장 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언	대부분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에 내릴 것으로 판단되니 그곳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인포메이션에 들러 브라티슬라바로 가는 버스 티켓을 예매하고 브라티슬라바로 간다. 낮이라면 숙소에 짐부터 풀고 바로 대사관을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숙소다. 기숙사 입학 허가서를 받고 현지에서 결제가 완료된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임시체류허가증인데 16 년도에 함께 간 김현식 군과 본인이 대사관 담당자에게 서류 작성 샘플을 만들어서 주었기 때문에 편리할 것이다.

	그리고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 경찰서에 가야하는데 새벽에 가도 대기 인원이 많아 8 시간정도 대기 할 수 있으니 이 점 염두에 두길 바란다. 끝으로 동양인과 흑인을 보기가 매우 힘든 곳이고 따라서 인종차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맞서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추방 당할 수도 있고 퇴학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성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 짧은 기간 금방 지나가니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